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사람

(시편 103:1~22)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7.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사람'
우리는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에서는 이러하신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가 독일 괴팅겐에서 유학을 할 때에 한국에서 신혼부부가 유학을 왔습니다. 두 분 다 키가 크고 잘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그 부부를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다고 합니다. 보통 독일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체격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겨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훤칠한 한국인 부부가 나타나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깨가 펴지더랍니다.
어느 날 그 부부가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중에 옷을 500만 원 어치나 사서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2/3가 여름옷이라고 합니다. 워낙 몸매가 멋진 분들이기에 여름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여름옷을 잔뜩 가져 왔는데 독일의 괴팅겐 날씨는 우리나라 늦가을 날씨입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은 두꺼운 콤비 셔츠를 일 년 내내 입으셨습니다. 겨울에는 그 셔츠 위에 재킷과 코트를 걸치고, 아주 더운 여름에야 그것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다니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기후에 여름옷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앙에도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라면 지금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며 시간과 노력을 쏟음이 아깝게 느껴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도달한다면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인데 애를 쓰며 마음을 쏟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통해 많은 찬양시를 보아왔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시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찬양시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것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의 내용이 일반적인 찬양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좋아했고 그 밖에도 김삼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옥한흠 목사님의 설교도 좋아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영적인 대가라고 불릴 만한 분들입니다. 요즘 교회세습 문제 때문에 안 좋은 방면에서 이름이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영적인 그릇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이 반복해서 인용하셨던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히 3절부터 5절까지를 줄줄 외시면서 때마다 반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해 삼박자 축복에서 특별히 병 고침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주 나오는 '송축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 건강, 형통 이외에 이 세상에서 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았을 때에 찬양은 주로 '쉬르'나 '자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송축하라'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로서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다'라는 용법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송축하라'를 직역해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축복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을 다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공급해주시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고 하나

님을 향하여 복을 빌어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무릎을 꿇은 겸손한 자세를 보일지라도 주제넘은 짓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1절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감정의 느낌들을 합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복을 빌라'는 뜻이 됩니다.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라고 다시 반복합니다.
본 시는 다윗의 자문자답에 가깝습니다. 지금 너는 복을 받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겠느냐고 자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축복해야 될 입장의 변명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넘치게 받았으니, 이제는 조금도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기에 구할 것이 없다보니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무슨 복을 빌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형통을 복이랍시고 빌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장수를 빌어드릴 수 없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께 재물의 복을 빌어드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로 구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복을 빌어 드릴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던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것을 자랑하듯 나열하지만 이것이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나열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을 받았다고는 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기껏해야 우리가 받은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말씀에서 다윗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은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도 하였으니 다윗은 무병장수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이 무슨 불치의 병을 고침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살면서 적잖은 병에 시달렸으나 나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칠십일 세까지밖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백이십 세까지 살면서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작 병을 고침 받았다고 고백하던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에는 이불을 덮어도 따듯하지 않았기에 신하들은 수넴 여자 아비삭으로 하여금 왕의 몸을 따듯하게 해야 했습니다. 의료적 목적을 위해 젊은 아가씨를 들여보내야 할 정도로 몸이 허약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할 만한 특별한 병 고침의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가 낫고, 배앓이를 하다 약 먹고 낫는 것처럼 이러한 일을 다윗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과장하듯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자문자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에서 아찔한 경험을 해본 적은 몇 번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초보운전이었을 때에 아우토반에서 역주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뻔 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늦게 보고 출발하는 바람에 직진하는 차에 충돌할 뻔한 아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경험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니 이것이 다윗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날아갈듯이 가볍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펄펄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린 사람을 두고 속된 말로 '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갑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시리라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모세와 선민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다 입히시고 먹이셨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지식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은 더는 구할 것이 없다는 말의 근거를 삼기 위해 누구나 받는 정도의 은혜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음과 그 증거를 자문자답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태였기에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져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구원 받음은 곧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이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측근으로 행동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의 상태가 충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비록 미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진 구원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반면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빈의 덕목을 지향하신 것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교단이 청빈을 덕목으로 세워서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은 청빈을 목적으로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괴팅겐에 유학 온 신혼부부에게 여름옷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상태 이상의 삶이 필요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바로 하늘 아버지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차꼬에 채워지고 채찍에 맞고도 기도하며 찬양을 했던 이유는 더는 구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구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차꼬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에는,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원하는 세상의 가치를 전혀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고, 그 결과로 자신을 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자신이 지은 죄를 밝히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앞서 다윗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신 것과 상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으로서 죄악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갖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상번제의 번제단을 통해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다윗은 세상에 대해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복을 빌겠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죄악이 나타날 때마다 그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두셨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또 하나의 등록증을 가져야합니다. 그 등록증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 태승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아의식이 언제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9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욱여싸는 상황보다도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세상에서는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할지라도 마음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하늘을 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보고 먼저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원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오늘도 하루 종일 여호와를 송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송축함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에 오늘도 우리의 생을 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아버지로 꽉 채워지는 마음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머리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